

# KMI 북방물류 동향리포트

KMI 북방물류 동향리포트 제94호 2019년 7월 10일

항만·물류연구본부 글로벌SCM연구실 △Tel.+82-51-797-4665 Fax.+82-51-797-4659 △총괄:박성준 러시아연구센터장 △감수:길광수 명예연구위원 △편집:김엄지 연구원

## 주요내용

### 통계로 보는 북방(p.2)

- 금년 1~5월 러 항만 물동량, 작년 동기 대비 증가...흑해 항만 물동량만 감소 추세

### 주요 동향(p.5)

#### • 동부(p.5)

- 일본, 러시아 Novatek의 Arctic LNG 2 사업 지분 인수
- 베트남 항공사, 김해공항 경유 러 블라디보스토크 신규취항 준비 중
- 극동북극개발부, 극동개발 성과 보고
- 중국, 연말까지 러시아산 수입 특정 제품 관세 인하 예정

#### • 중부(p.1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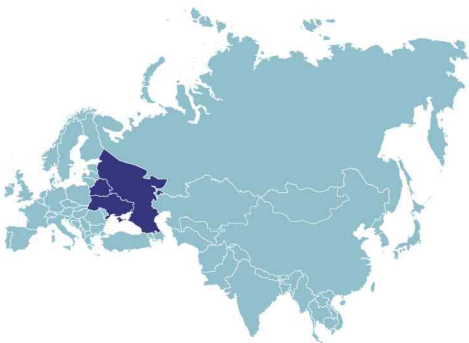
- CAREC, 2030년 전략 추진 논의

#### • 서부(p.15)

- 서구와 러시아 사이서 균형발전 추구하는 아제르바이잔...양측에 동시다발 협력 제스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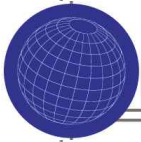
### 주요통계(p.17)

- 러시아 연방관구별 주요 어종 도매 가격(2019년 6월16일 기준)



한국해양수산개발원  
KOREA MARITIME INSTITUTE

서부권역 : 러시아 서부, 우크라이나, 벨라루스 등 / 중부권역 : 중앙아시아, 몽골 / 동부권역 : 러시아 극동, 시베리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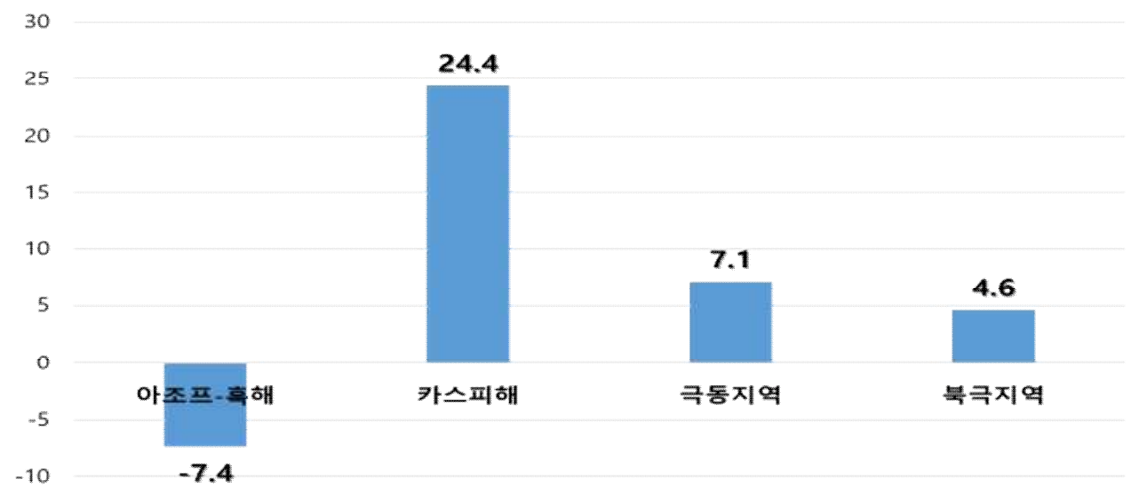


## 통계로 보는 북방

## ■ 금년 1~5월 러 항만 물동량, 작년 동기 대비 증가...흑해 항만 물동량만 감소 추세

금년 1~5월 수역별 항만 물동량 증가율

(단위: %)



자료: KMI 작성.

- 금년 1~5월 러시아 수역별 항만 물동량은 대부분 증가했으나, 아조프-흑해 수역 항만 물동량은 작년 동기 대비 7.4% 감소함
  - 올해 아조프-흑해 항만 물동량은 34,214TEU로 작년 동기 대비 7.4% 감소함
  - 수입 '컨'은 17,017TEU(-5.5%), 냉동 '컨'은 5,583TEU(-14.8%)이며, 수입 '컨'이 5,427TEU(-16.4%)를 기록한데 이어, 연안 '컨'의 경우 530TEU로 91.1%나 감소했음
  - 아조프-흑해 항만 물동량은 2016년 이래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음
  - 특히, 건화물을 기준으로 러시아 항만 중 1위를 차지했던 노보로시이스크 항만은 3위로 하락했으며, 물동량 상승률 기준 TOP 3에서 4위로 밀려났음



- 카스피해 수역 항만의 경우 컨테이너 물동량은 작년 동기 대비 24.4% (869TEU) 증가해 1,080TEU를 기록함
  - 해당 지역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은 2017년 대비 2배 정도 상승했음
- 금년 1~5월 극동지역 항만 물동량은 작년 동기 대비 7.1% 증가함
  - 극동지역 항만 물동량은 총 8,642만 톤에 달했으며, 그 중 건화물은 5,390만 톤(+8.1%), 액체화물은 3,252만 톤(+5.4%)을 기록함
  - 물동량 증가율은 7~8%로 작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감소하기는 했으나, 여전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
- 북극지역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작년 동기 대비 4.6% 증가함
  - 연안 컨테이너는 6,409TEU로 작년 동기 대비 5% 증가했으나, 냉장 컨테이너는 1,160TEU로 14.5% 감소했음
  - 두딘카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작년 동기 대비 0.7% 감소해 2,821TEU를 기록했고, 무르만스크 항만의 경우 작년 동기 대비 26.1% 증가해 2,520TEU를 달했음
  - 다만, 아르한겔스크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은 1,113TEU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.9%나 감소했음



- 참고자료 : <http://infranews.ru/logistika/more/54368-kontejnerooborot-kaspijskogo-bassejna-rf-za-5-mesyacev-vyros-na-244/>(검색일: 2019년 7월 11일)
- <http://infranews.ru/logistika/54355-gruzooborot-portov-dalnevostochnogo-bassejna-rf-za-5-mesyacev-vyros-na-71/>(검색일: 2019년 7월 11일)
- <http://infranews.ru/logistika/more/54353-kontejnerooborot-portov-arkticheskogo-bassejna-za-5-mesyacev-vyros-na-46/>(검색일: 2019년 7월 11일)
- <http://infranews.ru/logistika/more/54390-port-novorossiysk-teryet-svoipozicii/>(검색일: 2019년 7월 11일)

김엄지 연구원

051-797-4776, umjikim@kmi.re.kr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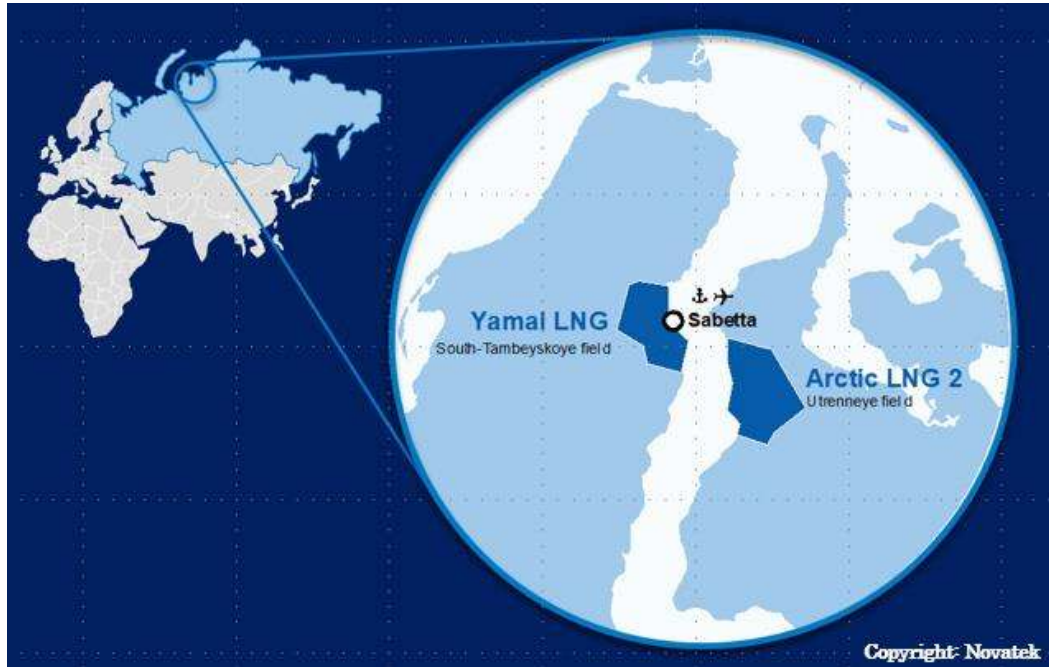
## 동부권역 주요 동향

### ■ 일본, 러시아 Novatek의 Arctic LNG 2 사업 지분 인수

- 러시아 에너지 회사인 Novatek는 Arctic LNG 2의 지분 10%를 일본 에너지 기업에 매각함
  - 2019년 6월 29일 G20 정상 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면담을 통해 협정이 체결됨
  - 이로써 일본의 에너지 회사인 Mitsui & Co와 Japan Oil Gas and Metals National Corporation(JOGMEC)이 러시아 북극 해안에서 개발되는 주요 LNG 사업의 지분을 확보하게 됨
  - Arctic LNG 2의 지분은 Mitsui와 JOGMEC가 공동으로 투자한 네덜란드 회사인 Japan Arctic LNG BV에 매각될 예정임
- 이로써 Novatek은 Arctic LNG 2 지분은 60%로 줄어듦
  - 프랑스의 Total SA, China National Oil and Gas Exploration and Development Company(CNODC), 그리고 CNOOC는 이 사업의 지분을 각각 10% 보유하고 있음
- Arctic LNG 2 사업은 gravity-based structure(GBS) 플랫폼을 사용해 매년 6백 6십만 톤 규모로 3개의 LNG 열차 건설을 계획하고 있음
  - 이 사업은 Utrenneye의 자원을 기반으로 함
  - 사업의 개발비 총액은 현재 약 21~23억 달러에 달하며, 생산은 2023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
  - LNG는 주로 북극 항로를 통해 아시아 및 유럽으로 운송될 예정임



## 러시아 Yamal LNG와 Arctic LNG 2



자료: <https://www.maritime-executive.com/article/japan-buys-into-arctic-lng-2>

- 참고자료 : <https://www.arctictoday.com/russias-novatek-finalizes-deal-to-sell-a-stake-in-arctic-lng-2-to-japanese-investors/> (검색일: 2019년 07월 08일)
- <https://www.arctictoday.com/japans-mitsui-and-mitsubishi-take-10-percent-stake-in-novateks-arctic-lng-2/> (검색일: 2019년 07월 08일)
- <https://russiabusinesstoday.com/energy/japanese-companies-buy-10-stake-in-novateks-arctic-lng-2/> (검색일: 2019년 07월 08일)
- <https://www.themoscowtimes.com/2019/07/02/japan-teams-up-with-russia-in-big-arctic-lng-a66248> (검색일: 2019년 07월 08일)
- <https://www.maritime-executive.com/article/japan-buys-into-arctic-lng-2> (검색일: 2019년 07월 08일)

권보배 전문연구원

051-797-4774, b2kwon@kmi.re.kr





## ■ 베트남 항공사, 김해공항 경유 러 블라디보스토크 신규취항 준비 중

- 베트남 항공사가 한국을 경유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신규 취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음
  - 최근 구엔 티 탄 호엥 베트남 하이퐁시 대외경제국 부국장은 연해주 정부와의 면담에서 부산 김해공항을 경유 하이퐁~블라디보스토크 간 항공편 신규 취항을 계획 중이라고 언급함
- 이와 관련해 알렉세이 스타리치코프 연해주 관광국장은 연해주를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한국을 경유한 베트남-블라디보스토크 간 항공편의 신규 취항은 양국 뿐만이 아닌 한국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함
-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 공보실은 올해 상반기 공항 이용객 수가 135만 명으로, 작년 동기 대비 약 22% 늘어났다고 발표한 바 있음
  - 공항 관계자에 따르면 국제선과 국내선 이용객 수가 비슷한 수준이 되며 특히 국제선 이용객 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임.
  - 공항 이용객 중 국내선 이용객이 71만 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약 10%, 국제선 이용객은 64만 명으로 지난 해 대비 35% 가량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

■ 참고자료 : <http://www.interfax-russia.ru/FarEast/news.asp?id=1044744&sec=1671>

(검색일: 2019년 7월 9일)

전명수 리포터(국립블라디보스토크경제서비스대)

070-5044-9502, msjeon1976@gmail.com



## ■ 극동북극개발부, 극동개발 성과 보고

- 알렉산드르 카즈로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은 극동개발에 관한 성과 보고를 함
  - 현재 극동지역의 산업생산은 러시아 평균보다 약 3배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
  - 지역 내 약 1,610개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약 217개의 새로운 기업이 설립되어 약 3,6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됨
  - 또한 극동지역 비즈니스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40개의 연방법과 190개의 정부령이 제정됨

###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 알렉산드르 카즈로프



자료: <https://minvr.ru/press-center/news/22745/>((검색일: 2019년 7월 6일))

- 알렉산드르 카즈로프 장관은 극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경제적인 측면과 인프라 측면에서 극동 이미지 탈바꿈을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함
  - 현재 극동지역에 39개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약 7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예상함
  - 이 중에는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석유·가스 화학 분야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으며 석탄채굴과 같은 전통적인 프로젝트도 포함됨





- 이 외에 극동지역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항공운송 및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발표함
  - 현재 극동지역 내 항공운송 및 네트워크는 효율성이 낮은 측면이 있음
  - 예를 들어 블라고벤센스크(유대인 자치주)에서 아나디랴(추코트카 자치구)를 가기 위해선 모스크바를 경유해야 하며 유즈노 사할린에서 마가단을 가기 위해서는 하바롭스크를 경유해야 함
  -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러시아 연방 교통부와 협력을 통해 40개의 극동공항을 복합운송망 계획에 포함시킴
  - 이에 따라 2024년까지 야쿠치야 16개, 추코트카 자치구 7개, 캄차트카 변경 6개, 하바롭스크 변경 4개, 마가단주 3개, 아무르주 2개, 자바이칼 변경 2개의 극동지역 공항이 새롭게 건설되거나 재건될 예정임
- 마지막으로 극동지역 내 경제성장 중심지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사회부문 개발계획을 발표함
  - 사회부문 개발계획은 연방예산 약 949억 루블을 투자해 2021년까지 극동사회시설 약 431개를 건설·현대화하는 것임
- 알렉세이 치데노프 부랴티아 공화국 전권대표 또한 사회부문 개발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언급함
  - 2019년부터 극동연방관구로 편성된 부랴티아 공화국은 사회·경제성장 중심지 건설을 위해 약 67억 루블에 달하는 93건의 개발계획을 승인함
  - 문화부문에서는 국립박물관 설립 등 13건의 개발계획이 있음
  - 또한 지역 인프라 개선을 위해 약 1억 6,000만 루블이 할당됨
  - 특히 부랴티아 공화국의 경우 전차 노후화에 따른 수리 및 현대식 전차 구입, 차고지 확보 등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전차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함
- 알렉산드르 카즈로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은 지역개발 및 발전을 위해 극동



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함

- 이에 따라 ‘극동 2025’ 포털사이트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도모하고 의견 및 제안서를 수렴하고 있으며 올해 말 극동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 개정 및 수립을 위한 최종문서에 반영할 계획임

■ 참고자료 : <https://minvr.ru/press-center/news/22745/>(검색일: 2019년 7월 6일)

김은미 현지 리포터(국립극동교통대학교)

051-797-4776, usea1004@gmail.com



## ■ 중국, 연말까지 러시아산 수입 특정 제품 관세 인하 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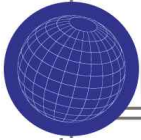
- 중국과 러시아 당국은 2019년 하반기 수입 관세 인하에 합의할 예정임
  - WMT Consult는 어류, 유제품 및 가축 제품에 대해 수입관세 인하 이뤄질 것이라고 밝힘
  - 2018년 11월 러시아 밀, 귀리, 메밀, 아마씨 등 주요 농산품에 대한 관세 인하 협정이 체결되었고 수산품과 일부 축산품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
  - 러시아는 2018년 기준 2,697억 루블(약 4조원)의 수산품을 수출했으며 이중 1위와 2위 수입국인 중국과 한국이 2/3를 차지
  - 그 외에 양국은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 쿼터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
  - 관련 논의는 러시아 농업부와 경제개발부의 주도로 진행 중이며 2019년 하반기 중으로 협상이 마무리될 예정
- 중·러 관세 인하 협상을 시작으로 양국 간 경제교류는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됨
  - 중국 정부는 2018년 11월 1일 러시아로부터 수입되는 1,585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기존 9.8%에서 7.5%까지 인하하는 안을 발표했고 대러 무역 관세는 지속적으로 줄어나갈 것이라 밝힘
  - 타스통신에 따르면 15년 안에 중·러 간 상품과 서비스 교역량이 각각 30조 달러, 10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
  - 관세인하, 교역량 증가와 같은 중·러 간 경제 교류 확대는 최근 긴밀해지는 양국 관계를 반영
  - 금년 4월 개최된 일대일로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은 대외무역 개방의 일환으로 전반적인 상품 수입을 증가시킬 것이라 밝힘
  - 세계에서 가장 큰 중산층 인구를 보유한 중국은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대일로 연선국가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할 전망



- 참고자료 : [http://logirus.ru/news/custom\\_and\\_ved/kitay\\_do\\_kontsa\\_goda\\_mozhet\\_poyti\\_na\\_poshlinnye\\_ustupki\\_rossii.html](http://logirus.ru/news/custom_and_ved/kitay_do_kontsa_goda_mozhet_poyti_na_poshlinnye_ustupki_rossii.html)(검색일: 2019년 06월 24일)  
<https://www.vestifinance.ru/articles/107659>(검색일: 2019년 06월 24일)

이호건 리포터(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)

leehkun2010@gmail.com



## 중부권역 주요 동향

### ■ CAREC, 2030년 전략 추진 논의

- CAREC(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·중앙아시아 지역 경제 협력체)의 주요 고위 인사들이 지난 1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모여 2030 전략 추진에 대해 논의함
  - 이번 고위급 회담은 CAREC 회원국 11개국 인사들이 역내 관련 중요 문제를 논의하고 올 11월 타슈켄트에서 개최되는 제18차 CAREC 각료회의 의제를 준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
  - 이번 회담에서 라지즈 쿠드라토프(Laziz Kudratov) 우즈베키스탄 투자 외교부 차관이 회의를 주재했으며, 아시아개발은행(ADB) 중부 및 서부국장 워너 리에 파치 (Werner Liepach) 사무 총장, 니칸산 장(Nikanshan Zhang) 사무차장, ADB 테레사 코(Teresa Kho) 동아시아 부국장이 공동 의장을 맡았음
- CAREC의 전략 이행을 위해서는 주변 국가들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 협력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며, 보다 나은 기반 시설들을 통한 역내 연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되었음
  - 특히 ADB 측에서는 CAREC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지역적 중요성을 가진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과 기술 및 행정 지원을 계속 제공할 것을 약속함
  - 아울러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는 지난 2017년 10월 타지키스탄 두산베에서 승인되었던 2030 전략에 대한 현재까지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시간을 가짐
  - 한편 2018년 고위급 회담은 투르크메니스탄 아쉬가바트에서 진행되었는데, 올해 회담에서는 당시 식품 안전 교류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한 각종 모니터링 시행 평가도 이루어졌음
- CAREC 2030 전략의 핵심은 물류 운송 회랑 구축과 관광산업과 같은 지속 가능성을 지닌 부문들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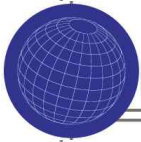
- 특히 싘켄트(Shymkent)~타슈켄트(Tashkent)~후잔드(Khujand)를 잇는 경제 회랑을 중심으로 한 무역 및 관광 개발 부분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 받음
- 한편 관광개발 부문은 '2021~2025 관광 투자 프레임워크'가 별도로 이행될 예정이며, 향후 ADB가 제안한 2백만 달러 규모의 기술지원과 관광 전문가 그룹 창설 등을 통해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음을 밝힘

■ 참고자료 : UzDaily (검색일: 2019년 7월 9일)

오상호 리포터(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)

031-330-4145, editor405ca@gmail.com





## 서부권역 주요 동향

## ■ 서구와 러시아 사이서 균형발전 추구하는 아제르바이잔...양측에 동시다발 협력 제스처

- 7월 9일 도날드 투스크(Donald Tusk, 폴란드)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아제르바이잔 바쿠 국제 상업항(Baku International Trade Sea Port)을 방문했음. 아제르바이잔 측에서는 샤힌 무스타파예프(Şahin Mustafayev) 경제부장관, 탈레흐 지야도프(Taleh Ziyadov) 바쿠 국제 상업항 대표이사가 참석했음
  - 무스타파예프 장관은 항만시설이 동서남북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물류허브의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 일함 알리예프(ilham Əliyev) 대통령의 2018년 5월 14일 축사를 언급하며, 바쿠 항을 바쿠~트빌리시~카르스(Baku~Tbilisi~Kars) 철도와 연계하는 종합 물류단지로의 확대계획을 발표했다
  - 지야도프 대표이사 또한 바쿠 상업항이 현대적인 IT 기술 기반 자동화물처리 시스템을 보유했다고 언급하며, 신속·정확 및 안정적인 수출입 및 환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홍보했음
- 한편 아제르바이잔은 카스피해 지역에서 러시아와의 수역 경계문제 해결 및 향후 협력 방안 논의에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
  - 7월 4일 헬레프 헬레포프(Xələf Xələfov)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특명전권대사와 이고르 브라치코프(Igor Bratchikov) 러시아 외무부 CIS국경조정국장 겸 특임대사가 회동했음
  - 양측은 수역경계선 합의를 위한 향후 실무진 회의에 대해 논의했으며, 양측이 만족할만한 합의를 통해 양국 협력 수준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공유했음



도날드 투스크 EU 상임의장, 바쿠 항 방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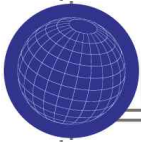
자료: AZƏRTAC 2019

■ 참고자료 : <https://denizxeber.az/2019/07/09/avropa-ittifaqi-surasinin-prezidenti-donald-tusk-baki-limaninin-f%C9%99aliyy%C9%99ti-il%C9%99-tanis-olub/>(검색일: 2019년 7월 9일)

<https://denizxeber.az/2019/07/09/az%C9%99rbaycan-xin-l%C9%99-rusiy-a-xin-arasinda-m%C9%99sl%C9%99h%C9%99tl%C9%99sm%C9%99-oldu-x%C9%99z%C9%99rl%C9%99-bagli/>(검색일: 2019년 7월 9일)

조용성 현지리포터(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)

+7 981-198-65-06, mirinae2929@gmail.com



## 주요 통계

러시아 연방관구별 주요 어종 도매 가격(2019년 6월16일 기준)

연방관구	어종	1kg당 가격 (단위: 루블)	가격 변동률	
			주간	1월~6월 16일
극동 연방관구	대구	190.0	0%	-4.0%
	명태	115.0	0%	+17.3%
	청어	65.0	0%	+30.0%
	가자미	117.0	0%	+30.0%
북서 연방관구	해덕대구	212.0	+1.0%	+1.0%
	대구	250.0	0%	-15.3%
	고등어	150.0	-4.5%	+20.0%
	청어	95.0	0%	+35.7%
중앙 연방관구	고등어	157.0	-1.9%	+20.8%
	명태	125.0	0%	+6.8%
	열빙어	105.0	+5.0%	+110.0%
	청어	98.0	-2.0%	+34.2%

참고자료 : <http://mcx.ru/upload/iblock/ad8/ad8c93f072882778a915a30373bcba7a.pdf>

(검색일: 2019년 7월 10일)

Peter Ruzankin 연구보조원(KMI 러시아연구센터)

7-914-345-3947, aquillar7@gmail.com